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민간 어린이집 20곳 선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빼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선정결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 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조영희 (042-481-4200)
		담당자	사무관	박지현 (042-481-8875)